



택배업체 결속다지기 주력

공동사업개발·추진

공 종 식 / 전국택배연합회 회장

포즘 도심지 뿐 아니라 산골오지에서 택배차량을 보는 것이 그리 낯설지 않은 일이다.

택배는 이제 특정인들이 이용하는 특수 서비스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손쉽게 이용 가능한 대중서비스가 되어가고 있다.

택배서비스도 단순한 소화물 위주에서 통신판매, 텔레마케팅, 홈쇼핑 등의 무점포 판매와 연계된 택배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나날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2000년 9월 26일 택배 산업의 성장, 발전과 함께 나아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성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국택배연합회가 창립되었으며, 회장으로는 동서물류(주) 공종식 사장이 선임됐다.

공종식 회장은 "택배사업은 21세기 유통, 물류산업의 꽃입니다. 세계화와 디지털,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수익구조가 튼튼한 택배사업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일에 우리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택배품질의 경쟁



력을 위한 신속성, 신뢰성, 정확성을 확립하고 둘째, 택배가격의 경쟁력을 위한 원가절감 요소를 개발하고 셋째, 택배서비스의 경쟁력을 위한 고객 needs의 핵심속성을 추출하여 현장에 반영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라며 회장으로서의 운영 계획을 밝혔다.

육군 수송자동차대대 수송하사관에 입대하면서 물류와 처음 접하게 되었다는 공회장은 제대 후 1974년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에 입사함으로써 물류업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1984년 공영동운(택배연구소)을 설립, 아·태 교통통신 10년대 상임위원회 위원과 교통개발연구원 자문위원을 지내면서 많은 경험을 쌓은 뒤 동서물류(주)와 VAN-Q 서울(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설립했다.

또한 1994년에는 중앙대 산업기술대학원에서 물류전문가 과정을 수료함으로써 좀더 전문적인 이론을 쌓았던 결과로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 표창, 국무총리 표창,

96년 물류대상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한국로지스틱스 대상(중소기업 서비스 부문) 등 많은 수상을 하였다.

공 회장은 1997년 (사)산업물류협회장으로 선임된 후 끊임없는 관심으로 의류운반용행거 실용신안 특허, 화물차의 적재함 덮개구조 실용신안 등록, 특허청 출원 중이기도 하다.

인간존중, 고객서비스, 효율성을 중요시하며 무엇이든 즐거운 마음으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공회장은 “대기업들이 택배시장을 크게 잠식하거나 진입을 꺾고 있어 이로 인하여 택배시장의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택배업체들은 자구책 내지는 업권 보호의 차원에서 상호간 공동배차 및 업무제휴를 통해서 중복과잉투자를 피하고 효율적인 공동택배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경영개선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영환경이 열악한 실정임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역할 분담이나 협력관계의 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라며 대기업에 대응하고자 각기 처한 사업환경에 걸맞은 적절한 자구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종식 회장은 전국택배연합회를 통해 택배사업의 공동화, 표준화, 정보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하나씩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전국택배연합회는 업계의 당면 과제로써 공동택배 터미널 건설추진, 공동택배 노선개발 운영, 공동택배 전산정보화 촉진, 취약지역 영업 배송망 공동구축 활용, 택배전문인력 육성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26년간 물류업계에 종사하면서 이번 전국택배연합회를 창립한 것이 가장 보람되고, 느낌이 새롭다는 공회장은 현재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동서물류(주)를 84년 설립하여 자본금 5억원, 종업원은 163명, 보유차량은 103대 보유하고 있다.

동서물류의 브랜드 명칭인 ‘아하택배’는 인터넷택배 서비스업, 납품대행, 택배서비스, 수시배차 서비스, 물류센터 종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토탈물류서비스, CVS 물류대행 물품 및 신선식품택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택배는 거래처의 큰 만족과 꾸준한 반응을 얻고 있다.

택배업체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서비스 경쟁에서 고객제일주의 고품질 서비스로써 제공하고, 서로 힘을 합쳐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튼튼한 택배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앞으로 택배사업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강조하는 공회장의 활약을 기대된다. ☞

권해진 기자